NGTV News Group

취재보도 이론과 실제

제 3~4주 <기사 & 실습>

배병화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1. 기사 구조

표제(title)

전문(lead)

본문(body)

역삼각형

삼각형

혼합형

다이아몬드형

역삼각형, 역피라미드형(inverted pyramid)

- 피라미드 엎어 놓은 형태.
  표제에서 핵심을 제시한 뒤
  전문에서 사건을 요약하고
  본문에서 내용을
  그 중요도에 따라 차례로 설명.

- 표제(title) : 제목. 핵심
  리드(lead) : 전문. 핵심 요약
  본문(body) : 중요도에 따른 부가적 설명문
  →중요 사실(facts of increasing importance)
  →추가 정보
  →세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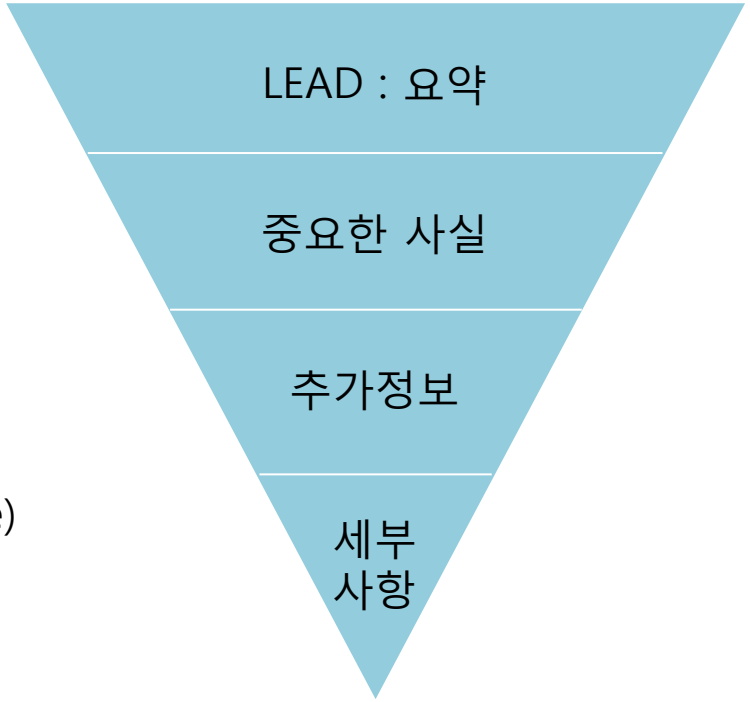

그림1. 역피라미드 형 기사 구조

삼각형(pyramid)

- 피라미드 엎지 않고 세워 놓은 형태

- 표제 : 제목. 핵심
  도입 : 독자 유인하는 문장
  (details of introduction)
  본문 :
  →중요 사실: 중요한 사실 서술
  (facts of increasing importance)
  →긴장부(suspense) : 고삐 다잡는 문장.
  (build up suspense)
  →핵심(climax)

그림2. 피라미드형 기사 구조

혼합형

- 핵심 전문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연대기적 방법 등을 구사해
  피라미드형으로 서술하는 형태

- 표제 : 제목. 핵심
  전문(climax lead) :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을
  맨 앞에 제시.
  대화체문장, 인용문 등 활용.
  (도입)
  연대기적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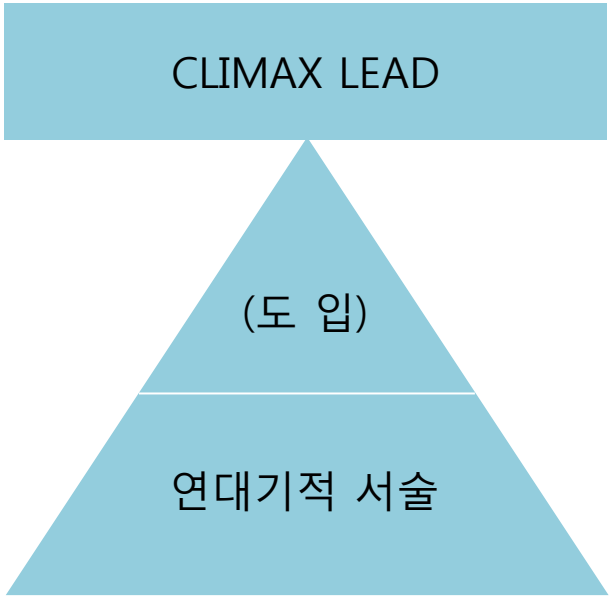

그림3. 혼합형 기사 구조

다이아몬드형

- 중요 내용을 가운데 두고
  그 앞과 뒤에 도입부와 추가 정보를 배열하는 형태

- 표제 : 제목. 핵심
  도입 : 밋밋한 내용.
  중요 사실 : 중심부에 주요 내용을 두툼하게 배열.
  추가 정보 : 맨 나중 추가하는 대화 내용
  또는 메시지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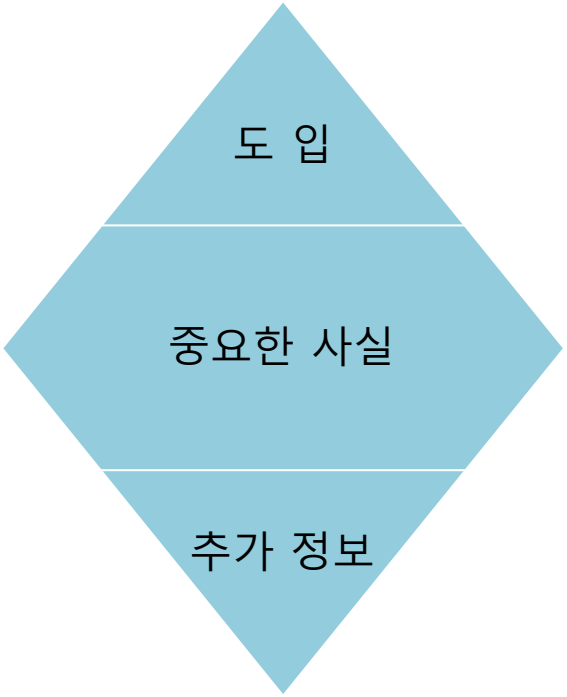

그림4. 다이아몬드형 기사 구조

2. 기사 구조와 분석, 비교

역삼각형 기사, 리드

□ case 1

제목: 대구서 40대 공무원 목매 숨진 채 발견

리드: *대구의 한 집에서 40대 공무원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who, what 강조)

본문(중요사실): 16일 오전 10시 31분 대구시내 A씨(40대·공무원)의 집 화장실에서 A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

추가정보: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날 술을 마시고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우발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3.01.17 기사)

<TIP 1> 사건기사 구조

역삼각형 구조: 리드+본문+추가 정보(부연)+세부 사항

리드: 도입부. 핵심 요약
6하 원칙으로 정리, 모든 것 전달. 첫 문장은 6하 중 어떤 쪽에 포커스 맞추거나 어떤 쪽을 생략하거나 기사의 중요성에 따라 순서 바꿀 수도. 패턴이 다양.

본문: 첫 문장 검증.
리드가 사실(진실)인지 다양한 문장으로 전개.
중요 사실, 추가 정보, 부연 사실

주의! 자기 생각이나 느낌 배제. 객관 유지+주관 배제.

<TIP 2> 사건기사 분석

1) 수학여행 가는 대학생 40명이 버스전복으로 모두 숨졌습니다.
(독자는 이미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겠지.
이 기자는 첫 문장을 "'대학생 40명 버스전복 숨져'에 맞췄군")

2) 오늘 아침 광주에서 경북으로 떠난 한국대학생 40명이 중앙선을 넘는 트럭과 충돌하여 전복된 뒤 인근병원으로 옮겼으나 전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군)

3) 경찰은 "트럭운전사 백 모씨는 음주운전 중이라며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음 경찰조사 내용이군, 음주운전이 사람 또 잡았군)

4) 사망 가족은 오열했으며 학교당국은 사고처리를 위해 경찰과 협조할 것 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많이 슬프겠네)

□ case 2

【기사 구조】 역삼각형 기사

독거男, 자살 6년 만에 유골만 남은 시신으로...

리드: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6년여 만에 발견됐다.*

본문(중요사실): 17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1시 45분께 부산 서구 남부민동 장모 씨(39)의 건물 2층 보일러실에서 세입자인 김모 씨(55)가 숨져 있는 것을 장 씨가 발견했다.
당시 김 씨의 시신은 피부조직이 모두 부패해 유골만 남았고 바닥에 누운 상태였다. 또 2m 높이 철골에 걸려 있는 전선에서 김 씨의 머리카락이 발견됐다.

추가정보: 경찰은 외부인 침입이나 타살 흔적이 없어 김 씨가 2006년 11월 말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 씨의 방 벽에 걸린 달력이 2006년 11월을 가리키고 있는데다 유가족과 이웃주민이 "2006년 이후에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7년 1월 김 씨에게 배달된 우편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연사항: 경찰의 조사 결과 결혼을 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던 김 씨는 2002년 어머니가 별세한 뒤 일용노동 등을 하며 혼자 살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누나가 3명 있지만 평소에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이웃과도 거의 교류가 없었다.
김 씨의 유골도 건물주인 장 씨가 동파된 수도관 보수공사를 하려고 4층 건물 전체를 둘러보다가 발견했다.

(2013.01.17 기사)

【기사 구조】 삼각형 기사

자살한지 6년 지나서… 50대 고독男 백골 발견

부산 다세대주택 보일러실서… 이웃주민들 아무 낌새도 못 채

16일 오후 1시 45분경 산동네인 부산 서구 남부민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 보일러실.
집주인 이모 씨(39)는 추위로 파손된 수도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보일러실을 둘러보다가 화들짝 놀랐다. 백골 상태로 바닥에 있는 시신을 발견한 것. 경찰에서 확인한 시신의 신원은 2층 세입자인 김모 씨(사망 당시 49세)였다.

김 씨의 집 현관 문 앞에는 전기, 건강보험, 전화, 수도료 고지서와 독촉장 70여 장이 2007년 1월 분부터 쌓여 있었다. 문을 뜯고 들어가니 안방에는 소주병 10여 개와 약봉지가 놓여 있었다. 달력은 2006년 11월에 머물러 있었다. 집 안 곳곳은 먼지로 가득했다.

보일러실의 천장 철골에 걸려 있던 전깃줄에는 김 씨의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다. 시신에 타살 흔적은 없었다. 유서도 없었다. 검안한 의사는 '목을 매 숨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김 씨가 2006년 11월경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가족과 이웃들의 무관심 속에 김 씨의 시신은 무려 6년 2개월 만에야 발견된 것.

집주인은 2002년 김 씨와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 2500만 원에 계약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집주인은 이미 보증금을 받은 상태였기에 2006년 이후 연락이 없어도 계약을 자동 연장시켰다. 집주인은 "김 씨가 이사를 온 뒤 몇 번밖에 보지 못했다"며 "전기요금이 체납돼 집에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어 일하러 나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 다세대주택에는 김 씨를 비롯해 6가구가 살고 있었지만 서로 왕래는 없었다. 한 세입자는 "김 씨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씨 집이 같은 층에서도 맨 뒤에 있어 지나다가 볼 기회도 없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던 김 씨는 2002년 어머니가 사망한 뒤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지냈다.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 살고 있는 누나 3명과는 연락을 끊고 지냈다. 2005년 어머니 제사 때 만난 게 마지막이었다. 김 씨의 누나(70)는 경찰에서 "2005년경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전화를 받은 뒤로는 소식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피부조직이 모두 부패했지만 보일러실 통풍구를 통해 환기가 돼 이웃 주민들이 이상한 느낌을 받지 못한 것 같다"며 "주위와 교류가 단절된 요즘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2013.01.18 기사)

□ case 3

【학력위조 교장-기사 1】 동아일보 (2013.01.18 기사)

교장이 25년간 학력 속였는데…경남교육청은 몰랐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25년이나 학력을 속였으나 도교육청이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교육청은 18일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속여 기재한 혐의(위조 등 공문서 행사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한 A씨는 도교육청에서 보관 중인 인사기록 카드에 다니지도 않은 '4년제 대학교'와 '교육대학원'을 수료해 석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12월 현재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장 공모 때 허위 학력이 적힌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해 교장에 뽑혔다.

도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최근 외부의 제보를 받고 확인에 나서 뒤늦게 인사기록카드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1981년 임용된 A씨가 1987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인사기록카드에 자신이 직접 허위 학력을 적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남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시효 2년이 지나 자체 처벌할 수 없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교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교사로 근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학력위조 교장-기사 2】 뉴시스 (2013.01.18 기사)

초등학교 교장이 학력 위조 충격

경남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모 초등학교장의 인사기록카드 학력 허위 기재와 관련해 지난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졸업한 고등학교 교명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교장은 모 교육대학(2년)을 졸업하고 교육공무원 신규 임용 시 인사기록카드 학력 란에 교명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사로 재직 시에도 모 대학교와 모 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인사기록카드 학력란에 모 대학교 졸업, 모 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라고 재차 허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2010년 12월 초순께 모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에 지원하면서 공모 지원서,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등과 함께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해 교장 공모제 지원 서류를 제출, 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공모제 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사기록카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교장공모제 지원 시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한 교장을 수사기관에 지난 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임용된 공모제교장의 인사기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인사기록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문책하고 앞으로 인사기록카드 및 NEIS 인사기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원=뉴시스】

□ case 4

'시아버지의 용서'...시모 살해 며느리 감형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살해한 며느리를 선처해 달라고 요청해 감형을 이끌어냈다.

17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 씨(41·여)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허 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상당구의 시댁을 찾았다가 시어머니(86)를 목 졸라 살해했다. 남편과 싸운 일을 들은 시어머니가 자기편을 들어주지 않는데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벌인 우발적인 행위였다.

시아버지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부에 며느리의 엄벌을 요구했다. '패륜적 범행'을 저지른 며느리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1심 재판부도 유족의 정서를 고려, 허 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을 받을 때마다 흐느껴 우는 허 씨의 모습에 흔들린 시아버지는 결국 며느리를 용서했다. 시아버지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수차례에 걸쳐 '며느리를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죄질은 나쁘지만 시아버지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여러 차례 탄원서를 냈다"며 "양형에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13.01.17 기사)

삼각형 기사, 리드

□ case 5

카톡에 들통난 교통사고 사기꾼

사기행각 벌이다 스마트폰에 찰칵…경찰 선후배가 카톡으로 얼굴 확인

15일 오후 4시경 전남 장흥경찰서 장흥읍내 파출소. 운전자 신 모 씨(24)는 "30분 전 김모 씨(38)가 장흥읍내 사거리에서 내 승용차 백미러에 손목을 일부러 부딪친 뒤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반면 김 씨는 "신 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 순간 노모 씨(24)가 파출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다. 실랑이를 벌이던 김 씨는 노 씨를 보고 당황했다. 김 씨는 불과 1시간 전 장흥읍내 사거리에서 같은 피해를 주장하며 노 씨에게 현금 1만 원을 받았다. 노 씨는 행여 김 씨가 뺑소니사고로 신고할 것을 걱정해 파출소를 찾은 것. 불과 1시간 사이에 같은 곳에서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김 씨가 엉터리 피해자라는 것이 의심 가는 상황.

사건을 조사하던 파출소 박모 경사(42)는 함께 근무하는 정모 경위(50)가 얼마 전 했던 얘기가 퍼뜩 머리를 스쳤다. "이달 3일 전남 나주에서 누군가 내 승용차 백미러에 부딪친 뒤 돈을 요구해 보험처리를 했는데 사기꾼인 것 같아 피해자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뒀다"는 얘기였다. 박 경사는 카카오톡으로 정 경위에게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 사진 속 얼굴은 김 씨였다.

장흥경찰서는 20일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전직 보험설계사인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운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운전자 25명에게 합의금 200여 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흥=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2013.01.21 기사)

□ case 6

실형 선고받은 '신지식인 1호' 심형래

직원 임금-퇴직금 9억 체불
집유-사회봉사 80시간 선고
심씨 "물의 죄송... 항소할것"

1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3층 304호 법정. 한국 공상과학(SF) 영화의 선구자로 불렸던 영화감독 심형래 씨(55·사진)가 피고인석에 섰다.

2011년 11월 심 씨가 대표인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9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지 14개월 만이다. 감색 재킷 안에 회색 니트를 입은 그는 조금 부은 듯한 얼굴에 지친 표정이었다. 과거 '영구' 캐릭터로 국민에게 큰 웃음을 줬던 익살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영식 판사(형사6단독)는 이날 심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근로자 24명과 합의했지만 남은 근로자 19명에 대한 피해금액 2억5900여만 원이 남아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심 씨는 굳은 표정으로 두 손을 모은 채 묵묵히 듣기만 했다.

선고 후 법정을 나선 심 씨는 침통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심 씨는 "어떻게든 우리 영화를 수출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다 내 불찰이다. 하루빨리 재기해서 직원들의 그동안의 고통, 임금을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지 않겠다. 영화 찍을 때만 돈을 주는 계약직을 쓰지 정규직 직원을 쓰는 것은 무리였다"며 제작자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곧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씨는 자금난으로 2011년 7월 제작사 문을 닫았다. 2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한 영화 '라스트 갓 파더'(2010년)가 흥행에 실패했고 영화 '디워'(2007년) 제작을 위해 빌린 55억 원을 갚으라고 금융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임금이 밀린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심 씨는 소송 과정에서 제작사 건물 등을 처분해 직원 24명과 합의했지만 나머지는 해결하지 못했다. 일부 직원은 심 씨가 카지노 도박을 일삼아 재정난이 심화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1982년 KBS 특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심 씨는 KBS '유머 1번지'에서 '영구' 캐릭터를 맡아 국민적 인기를 누렸다. 1993년 영구아트무비를 설립해 영화 제작자로 나서 1999년 SF 영화 '용가리'를 제작했다. 정부는 이 영화가 한국형 SF 영화의 새 장을 열었다는 점을 인정해 심 씨를 '신지식인 1호'로 선정했다. 영화 '디워'로 할리우드에 진출하기도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2013.01.17 기사)

혼합형 기사

"13년이 장난이냐" 살인혐의 피고인 재판장에 고함

`시신없는 살인사건' 항소 기각되자 난동

"13년이 장난입니까?"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장을 노려보며 고함을 질렀다.

두 눈을 부릅뜨고 판결을 다 들은 후 "질문이 있다"며 손을 들고선 난동을 피운 것이다.

교도관과 법정 경위가 즉시 피고인을 제압한 후 `진정하라'며 법정 밖으로 끌어내긴 했지만,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른 말 없이 "나가세요"라고 한 재판장은 잠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예정된 다른 사건 선고공판을 이어갔다.

18일 오전 서울고법의 한 형사법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박모(4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검찰이 범행 방법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는 인정하지 않는다. 징역 13년을 적정한 형량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씨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건 자신의 주장을 재판부가 조목조목 반박하자 화를 참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씨는 2007~2008년 지인 A씨에게 1천200여만원을 투자받은 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는 A씨를 땅에 파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언과 정황 증거만 있고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박씨는 작년 7월 1심에서 누명을 썼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들은 새벽까지 이어진 격론 끝에 유죄 의견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2013.01.18 기사)

다이아몬드형 기사

【사례1】 양다리 性교사... 알고 보니 다른 제자와도 지속적 성관계

"서로 사랑해서 합의하에 이뤄진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교사 A 씨(30)는 일관되게 이렇게 진술했다. 성관계를 맺은 제자 B 양(13·6학년) 역시 같은 주장을 펼치며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충격을 줬다. B 양은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A 씨의 주장은 파렴치한 변명이었음이 드러났다. A 씨가 B 양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다른 제자와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릉경찰서는 옛 초등학교 제자인 여고생 C 양(17·1학년)과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9월 자신의 집에서 C 양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A 씨의 소식을 접한 C 양이 아버지를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C 양이 지난해 3월 첫 성관계 시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A 씨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강제성이 없었다면 A 씨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강제성이 없었다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또 성관계 당시 C 양은 15세였기 때문에 피해 대상자를 13세 미만으로 한정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여름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사건이 빈발하자 9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관계자는 "강제성을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려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라며 "추가 기소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초등학생 제자인 B 양과 6차례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설사 A 씨의 주장처럼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 해도 13세 미만의 여성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A 씨가 초등학생에 이어 고교생 제자와도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A 씨가 소아성애증 환자일 개연성을 열어 두고 정신의학과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아성애증 환자로 분류된다. 소아성애증 환자는 "아이가 나를 먼저 유혹했다"라고 생각하는 A 씨처럼 성의식이 왜곡돼 있다.

전문가들은 소아성애증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린 학생과 접촉이 잦은 직업을 가질 경우 행동으로 옮길 위험성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학생이 적극적으로 교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학생과 단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교사의 소아성애증 성향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학생에게도 교사가 성적인 요구를 할 때 단호히 거절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소아성애증 성향 교사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일반 정신질환과 달리 평소 행동만으로 교사의 소아성애증 성향을 주변에서 알아채기도 어렵다. 더구나 교사 직업군 내 소아성애증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는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임용 전에는 소아성애증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성범죄 경력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교사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교사직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릉=이인모 기자·박훈상 기자 imlee@donga.com

【사례2】 손가락 발가락 모두 잘린 알몸女 시체, 죽음의 진실은?

지난 2011년 6월 30일. 경기도 부천의 한 근린공원에서 알몸 상태의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데다 피해 여성의 물건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이한 건 손가락과 발가락 끝이 모두 절단돼 있다는 사실이다.

“얼굴, 손가락, 발가락. 신원 확인을 못하게 한 거잖아요”
“손가락은 그렇다 치고 발가락이 다 잘린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키 160㎝ 전후의 40대 여성. 하지만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고 사체가 훼손돼 있어 사인도 밝혀지지 않았다. 법의학자들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절단된 것에 주목했다. 손톱 끝에 남아 있을지 모를 자신의 DNA를 없애거나 피해자의 지문을 없애 신원 확인을 방해하는 일은 살인사건에서 종종 나타난다.

문제는 발가락이다. 범인은 왜 피해자의 발가락을 훼손해야 했을까?

전문가들은 범인이 피해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살인을 저지른 후 흥분 상태에서 손가락의 지문을 없앤 후 발가락에도 지문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모두 잘라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신원이 파악되면 범인도 곧 드러난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신원입니다”
"신원만 파악되면 90%이상 사건이 해결된 거나 마찬가집니다”

얼굴과 지문이 사라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경찰의 협조아래 한 대학 연구팀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복원해보기로 했다. 시신 전체를 CT로 촬영하고 두개골을 3D 프린터로 스캔해 살아 있을 때의 얼굴을 복원하는 것은 국내 최초의 시도로 2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그리고 이렇게 복원된 얼굴을 토대로 탐문에 들어갔다.

얼마 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복원된 얼굴이 행방불명된 자신의 이모와 비슷하다고 했다. 키, 나이는 물론 다른 신체적 특징도 유사했다. 제작진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경북 영천으로 향했다. 가족들이 건네준 사진 속의 여인은 복원된 피해자의 얼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었다.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범인이 지워버린 피해자의 신원을 첨단 과학으로 추적해 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에 얽힌 진실에 다가가고자 한다.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지워져 범인의 흔적이 모두 없어진 사체를 제작진과 경찰, 대학 연구단체가 협력해 사체의 얼굴 복원에 성공한 사실을 방송한다. 이를 토대로 제작진은 피해자의 신원을 첨단 과학으로 추적, 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에 얽힌 진실에 다가선다.

1월 12일 오후 11시5분 방송. [뉴스엔]

(2013.01.12 기사)

인터뷰 기사

<인터뷰> 야당이 우뚝 서야 정치가 산다(릴레이 인터뷰)

<1>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민주, 미래 위해선 종북과 확실히 선 그어야"

《 1955년 민주당을 만든 산파 중 한 사람인 고 정일형 박사의 아들이자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정호준 의원(서울 중)의 아버지인 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 3대째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5선 의원을 지낸 정치원로이자 2003년 당 대표를 지냈던 정 고문은 16·17대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었다. 지난해 대선 패배와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을 법한 그를 이달 6일 서울 시내에서 만났다. 》

—민주당의 패인(敗因)은 무엇이었나.
"뭐니 뭐니 해도 '아름다운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유권자 분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다. 젊은 사람들 투표율만 끌어올리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깨졌다. 앞으로 5060세대 유권자 비율은 45%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들을 향해 '꼰대'니 어쩌니 하는 사람이 나오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나이가 많다고 모두 여당 지지는 아니라고 본다.
"중도층 공략에 실패했다. 이번 대선에서 '좌 클릭'만 했다. 당론에서조차 중도를 뺐다. '중도와 서민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었던 것을 '서민을 위해 노력하는'으로 바꿔버렸다. 나도 나중에야 알았다. 국민들 눈에 민주통합당이 민노당인가 생각이 들게 했다. '종북' 세력에 확실한 선긋기를 못했다. 대선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이정희 후보를 야단쳤어야 했다.

이 후보가 (대선후보) 사퇴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당 차원에서 성명이라도 냈어야 했다. 결국 이 후보가 박근혜 후보 당선에 효녀 중 효녀가 되지 않았나."

—후보 자체의 문제점은 없었나.
"대선 출마 전날까지 나는 이부영, 김덕룡 의원과 함께 문 후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국회의원직을 내놓으라'는 거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후보뿐 아니라 참여정부에 깊이 관여했던 고위관료들도 백의종군을 선언했어야 했다. '실패한 참여정부'를 떠올리게 하는 세력들을 앞에 내세웠다.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국민들 눈에 '문 후보=참여정부'로 비쳤다. 당연한 것 아닌가.
오죽했으면 나조차도 문 후보 광화문 유세 때 참여정부 대표 인사들이 줄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선거는 틀렸다' 생각했을까...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DJ) 같았으면 (이런 일은) 어림도 없다. DJ는 선거 때 '내 근처에 호남 인사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라, 경호원들이라도 시켜 물러나게 하라'고 했다."

아직도 대선 패배의 상처가 깊은지 그의 얼굴엔 웃음기가 없었다.

"선대위 운영도 어수선했다. 뭘 조언해 주려 해도 누굴 붙잡고 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후보 스스로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서 '된다'고만 하더라. 운동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었다면 좋다. 하지만 (문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잖은가. 나중에 TV토론 영향으로 지지율이 약간 오른 정도였다. 우리 당 국회의원 12명이 자기 지역구에서 다 졌다. 8개월 전 총선 때는 이겼던 곳이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 이해찬 전 대표는 물론이고 문 후보 자신도 부산 사상구에서 졌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서울 지역구 한 군데에서만 졌다. 선대위 리더십이 없었고, 협동도 없었다."

그는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것도 문 후보 측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나중에 들은 거지만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타협안을 내놓았을 때, 문 후보는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더라.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를 중심으로 몇몇이 (안 된다고) 펄펄 뛰어서 뒤집어엎었다는 것이다. 다음 날 바로 안 후보가 사퇴해 버렸다. 당시 당내에서는 안 후보의 타협안을 받아들여도 문 후보가 유리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었는데도 말이다."

—안 후보 협상안을 거절한 측의 논리는 무엇이었다고 보나.
"제대로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단일화 경선에서) 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형세를 안일하게 보기도 했고. 안 후보가 금방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문 후보가 주변에 휘둘렸다고 보나.
"리더십 문제라고 본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오래된 구렁이' 같은 리더들을 제쳤어야 했다. 문 후보는 원만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선량한 사람이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결국 문 후보가 지는 거다."

—대선 1년여 전인 2011년 8월 변호사로 있던 문 후보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본인은 권력의지가 없다는 말을 할 정도로 (대선 출마에 대해) 마음을 정하지 않았던 상태였다.
"급조된 지도자의 성격이 짙다.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당선인이야말로 '준비된 지도자'였다. 10여 년간 정치무대에서 국민 마음에 각인됐잖은가. 하지만 문 후보는 갑자기 나타났다. 정치도 안 해봤고 선출직 국회의원도 안 해본 상황이었다. 국민들은 낯설었을 것이다. 어떻든 이번에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65~80%였는데도 졌다.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의원이 출마했을 때 내가 선대위원장을 맡았었다. 지금에서야 이야기지만 그땐 '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민주당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쇄신을 말하니 국민에게 감동이 없다.
"후보가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DJ도 비슷한 상황에서 물러나 있다가 돌아오곤 하지 않았나. 비대위가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 패인을 분석하고 '왜 졌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분석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선 두 번 지고, 총선 두 번 졌다. 우리 당 국회의원 127명 중 100명이 친노 혹은 친노에 가까운 사람이다.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앉아 있으니 제대로 된 반성이 안 된다."

—원탁회의(백낙청 서울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야권의 원로모임. 4·11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를 중재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문·안 단일화를 촉구했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과연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한 것 아닌가."

—정 고문은 이번 선거 때 어떤 역할을 했나.
"이부영, 김덕룡 전 의원과 셋이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7일에는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대표 17명이 성명을 내기도 했다. 대선후보들과의 만남도 추진했는데 박근혜 당선인 쪽은 거부했고, 문 후보는 100% 찬성 의사를 밝혀 굳이 만날 필요가 없었다. 안 전 후보도 만났었다."

정 고문은 당시 "안 후보를 처음 봤다"고 했다.

"그 전에는 (그를) 잘 몰랐다. 그래서 만남을 앞두고 그의 책 세 권을 찾아 읽어봤다. 책을 읽어보고 그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렸다. 탄탄대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실패도 많았더라. 컴퓨터공학자가 정치를 알까 했는데 시대적인 이슈를 제대로 잡았더라. 하지만 '정치개혁' 부분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중앙당을 폐쇄해야 한다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그를 만났을 때 (국민) 속 시원하게 내던지는 것은 좋지만 깊은 안목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다. 얼굴이 벌개지더라."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봤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선을 했다면 안 후보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렇게 되었다면 박 당선인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안 후보가 사퇴를 하자마자 내가 바로 전화를 해서 '무조건 문 후보를 찾아가 유세를 도와주라, 그래야 멋쟁이가 된다'고 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더라. (그는) 항상 누가 무엇을 말하면 고민하고 연구해서 대답하는 사람이다. 이런 점이 기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아무튼 그 뒤 세 번 정도 전화를 했을 때 모두 현장에 가 있더라. 스스로 잘 판단했다고 생각했다."

—민주당의 앞날이 잘 안 보인다.
"위기가 기회이다. 40대, 50대를 열심히 공략하고 중도나 중도우파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종북 좌파와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의자에 앉아서 2030에 연연하는 것은 일부러 지려고 작정한 집단이 되는 길이다. 홍보 전략도 문제였다. 특히 이번에 종합편성채널 출연 거부는 큰 실수였다."

—이른바 '친노 그룹'의 움직임은 어떤가.
"말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이번에 실패한 이유를 알고 있을 테니 함께 고쳐가야 한다."

—민주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나.
"가장 두려운 것은 반성 없이 이대로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희망이 없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차기 인재 풀이 넓다. 키워야 하고, 준비시켜야 한다. (후보자를) 빌려온다면 정당의 막을 내려야 한다. 인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번 인수위 박 당선인의 인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윤창중 수석대변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는 인터뷰를 위해 10장 이상의 자필 자료를 준비해 왔다. 두 번이나 대선 선대위 위원장을 맡은 사람답게 '큰 판'을 보는 시야가 느껴졌다. 하지만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는 그의 어깨엔 힘이 없어 보였다. 그런 그를 보며 민주당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갖고 있는 애정의 깊이를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하고 강력한 야당이 없는 여당 독주의 국정 운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보내는 걱정이 진심 어린 애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빨리 길을 찾아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허문명 오피니언팀장 angelhuh@donga.com

(2013.01.17 기사)

3. 뉴스 쓰기

단문기사 : 한 문장

언제: 11일
누가: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디서: 강남구 논현동 다이내스티호텔 앞에서
어떻게: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차끼리 얽히는 바람에 회사원 김모(24)씨와 시비를 벌이다 차를 못 가게 막는 김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차를 몰아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게 한
무엇을-1: 인기그룹 OO의 멤버인 오모(21)씨를
왜: 폭행 혐의로
무엇을-2: 불구속 입건했다.

1단 기사 : 2~3개 문장.

단문기사 쪼개기 : *위 단문 재구성*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인기그룹 OO의 멤버인 오모(21)씨를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강남구 논현동 다이내스티호텔앞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차끼리 얽히는 바람에 회사원 김모(24)씨 와 시비를 벌이다 차를 못 가게 막는 김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차를 몰아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키우기

- 2단 기사 : 전문과 본문 갖춘 기사
- 3단 기사 : 전문과 본문 갖춘 기사
- 4단 기사 : 전문과 본문 갖춘 기사
- 5단 기사 : 전문과 본문 갖춘 기사
- 6단 기사 : 전문과 본문 갖춘 기사
- 7단 기사 : 전문과 본문 갖춘 기사

리드(전문) 쓰기

<유형 1>
요약형, 직접소구형, 상황형, 기술형, 흥미유발형, 열거형, 인용형, 묘기형

<유형 2>
6하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
Who 강조, What 강조, When 강조, Where 강조, Why 강조, How 강조

<유형 3>
우리나라 3가지 유형이 보편적.
요약형 : 6하 거의 다 소화한 형태.
그 중 어떤 것 강조하거나 한두 가지 생략 후 본문에 포함
강조형 : 6하 가운데 핵심적 사항을 뽑아 쓴 강조한 형태.
혼합형 : 요약형과 강조형 전문을 혼합한 형태.
사건의 핵심을 강조한 짧은 문장을 하나를 제시하고 이어서 사건을 6하 원칙에 따라 요약하며 설명하는 절충형 전문.

※ 인용형
※ 흥미유발형
※ 직접소구형

신문기사 쓰기

- 교통사고
- 재난사고
- 사기
- 화재와 방화
- 환경관련
- 재판
- 자살
- 폭행
- 수뢰
- 강도
- 살인
- 성범죄-강간 성추행 성희롱 간통 간음
- 납치·유인
- 신종범죄

방송기사 쓰기

- 교통사고
- 재난사고
- 사기
- 화재와 방화
- 환경관련
- 재판
- 자살
- 폭행
- 수뢰
- 강도
- 살인
- 성범죄-강간 성추행 성희롱 간통 간음
- 납치·유인
- 신종범죄

<TIP 3> 신문기사와 방송기사의 속성 차이점

신 문 기 사	방 송 기 사
시각매체 (눈)	시청각매체 (눈+귀)
문어체 -쉬운말 : 용어, 문장 -존댓말 X, 비교적 긴 문장 -한 호흡 무의미 -사투리 X, 표준말 O -억양 고저장단 X	구어체 -쉬운말 : 용어, 문장 -존댓말 O, 짧은 문장 -한 호흡, 한 번 쉬기 -사투리 X, 표준말 O -억양 고저장단
눈으로 해독 (동영상 X) 6하 원칙 중심 O 속보성 X 시의성 열위 기록성 우위 독자 제한적(고학력층) 대중성 열위 정보량 우위	눈으로 해독 (동영상 O) 6하 원칙 중심 X 속보성 O 시의성 우위 기록성 열위 시청자 무제한적 대중성 우위 정보량 열위

<TIP 4> 신문기사와 방송기사의 실제 비교

□화재사고

《신문기사》

6일 오전 3시쯤 서울 중구 다동 OO빌딩에서 누전으로 불이 나 3명이 숨졌다.

《방송기사》

불이 난 OO빌딩입니다. 5층 건물이 온통 시꺼멓습니다. 이 빌딩에서 새벽 3시에 불이 나 세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

《신문기사》

언제 when : 28일 오후 5시 5시 10분쯤
어디서 where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남해고속도로에서
누가 who : 마산에서 광주로 가던 광주 태극관광 소속 버스(운전자 김영 부·54) 가
왜 why : 빗길에 미끄러지며
어떻게 how :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4m 언덕 아래로 떨어져
무엇을 what : 김종수 씨(전남 나주시 동강면 대전리) 등 4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방송기사》2002. 3. 28 KBS 9시 뉴스

앵커 : 오늘 경춘국도에서는 승용차와 시외버스가 충돌해서 두 명이 목숨을 잃고 다섯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은 사고가 잦은 곳이 라고 합니다. OOO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버스와 충돌한 승용차가 마치 휴지조각처럼 구겨졌습니다. 사고는 오 늘 낮 11시쯤 춘천에서 서울 쪽으로 달리던 앨란트라 승용차가 중앙 선을 넘어 마주오던 시외버스와 충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승용차를 피하려던 시외버스는 가드레일을 넘어 추락했습니다.
이희옥(목격자) : 소리가 나서 보니까 버스가 막 구르고 있더라고요. 한 대 여섯 번 구르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 20m 언덕 아래로 굴러 거꾸로 추락한 버스는 이렇게 윗부분이 처참 하게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마흔 한 살 이 모씨 등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박정수(사고버스운전자) :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쓱 피했는데 꽝하고, 그 다음은 모르죠.
기자 : 올해 들어 이 곳 빚고개에서만 벌써 열다섯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박씨가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OOO입니다.

□환경관련

《신문기사》

언제 when : 20일과 21일
어디서 where : 부산 사하구 다대동 낙동강 하루 장림하수처리장 부근에
어떻게 how : 잉어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떠올라
누가 who : 낙동강환경관리청과 부산시 환경보건연구원이
무엇을 what : 공동조사에 나섰다.

《방송기사》

앵커 : 남해안 적조 비상입니다. 오늘 통영의 한 섬 마을만 무려 150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피해는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OOO 기자입니다.
기자 : 폐사한 물고기들이 물 위로 둥둥 떠올랐습니다. 7m 깊이 그물 바닥 에 가라앉은 것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벌써 땅에 묻은 고기만 9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 마을 양식장 2헥타를 덮친 적조는 하룻밤 새 150만 마리, 시가 40억 원어치를 몰살시켰습니다. 올들어 가장 큰 피해규모입니다. 출하를 앞둔 참돔이나 돌돔같은 고급어종이라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3년 이상 키워 온 어민들은 이 같은 날벼락에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어민1 :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건더기도 없고, 전부 여기에 투자해 놓았는데 몰살이니까….
어민2 : 2~3일 내에 갑자기 많이 닥쳐서 엄두가 안나요. 황토도 소용이 없고….
기자 : 적조생물이 코클로디니움이 1mm에 5천 개체 이상이면 2시간 안에 어류가 폐사하는데 적조경보가 내려진 이 지역의 적조밀도는 이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미 150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한 여수 앞바다에서도 오늘 볼락 3만 마리가 또 죽어서 어민들은 애태우고 있습니다.

논설 쓰기

□ 논설 구조(삼각형 구조)

(1) 형식
3단 논법: 서론 본론 결론 (3개 문단, 4~5개 문단)
4단 논법: 기·승·전·결 (4~5개 문단)

(2) 전개 : 논설문의 얼개표(outline list)
⇒ 경험한 사실과 그 해설
(제목에 관한 경험 사실 소개 및 해설)
⇒ 의견
(의견의 구체화)
⇒ 의견이 바르다는 이유와 그 근거들(1, 2)
(의견이 옳은 증거, 사실에 입각한 서술)
⇒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에 반론
(반론, 재반론의 근거 제시)

(3) 문장과 건축의 비유
-표현은 내용의 아들
-재료는 7, 솜씨는 3
-플로베르, 《보바리 부인》 단 6행을 쓰기 위해 3권의 책 읽었다.

<TIP 5> 건축과 문장 비교

건 축	VS	문 장
설계도 튼실함 아늑함		구상 화제+구성 표현의 매력

□ 유의 사항

·사안에 대한 정보와 지식
·나름의 분명한 주장
·객관적 주장, 공정한 주장, 균형 있는 논지
·알기 쉽고 평이한 글
·체계적 논리의 전개(4~5개 문장의 한 단락, 4~5개 단락)
·다양한 논설 읽기

□ 논설 사례 (동아일보)

[사설1] 4대강, 감사 결과 존중하고 고쳐서 더 푸르게

심명필 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지난해 말 퇴임 직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스스로 100점 만점에 95점이라고 평가했다. 3년 8개월간 사업을 진두지휘한 그는 "하천 준설을 통해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강을 만들고 홍수와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자원 관리가 이뤄졌다"고 자랑했다.

그제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심 본부장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4대강의 주요 시설물인 보(洑)의 내구성과 수문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관리로 수질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준설로 유지관리 비용이 2880억 원이나 되는 문제도 드러났다. 22조 원을 들인 대형 국책 사업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고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가 관리 감독에 빈틈이 생기고 부실 징후가 나타난 것이다. 감사원이 2010년 1차 감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다른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1차 때는 '공사 결과'가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 등 '공사 이전'을 감사한 것이어서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4대강 추진본부는 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의 주장만 받아들여 문제를 부풀렸다"며 억울해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어제 "보의 안전과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감사원의 구체적인 지적들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보완을 약속했다. 감사 결과를 부풀려서도 안 되고 깎아내릴 이유도 없다. 정부 당국은 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설계, 수질, 유지보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꼼꼼히 재점검하고 철저한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4대강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침식과 재(再)퇴적 같은 부작용을 피하려면 지류 지천의 수질 개선 사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16개의 보를 설치해 전국적으로 저수량 6억2000만 t의 '거대한 물그릇'을 만드는 공사로 200년에 한 번 올지도 모를 홍수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까지 대비하는 건국 이후 최대의 치수(治水) 사업이다. 한반도는 강수량이 집중되는 여름철에 홍수 피해를 보고 봄에는 강이 말라 가뭄에 시달린다. 물 부족과 홍수에 대비해 물그릇을 키우고 물길을 정비하는 일은 어느 정부라도 꼭 해야 할 사업이다. 태풍과 호우가 잦았던 지난해 홍수 피해가 예년보다 줄었던 것도 4대강 사업의 덕이다. 공사 부실은 시정해야 하지만 치수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까지 부인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6개 보를 다 뜯어내서 강을 옛날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식으로 이번 감사 결과를 이용하려는 것은 이성적 대응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후보 TV토론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알고 있다.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약속대로 새 정부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문제점을 찾아내고, 부실을 털어낼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3.01.17 기사)

[사설2]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스스로 결단할 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야권을 넘어 보수적 시민단체까지 번져가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어제 "언급하기도 민망한 제보가 점입가경"이라며 "이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세워도 되는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묻고 싶다"고 박 당선인까지 끌어들였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 마지막 신문고인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민 정서를 거스른 판결과 부조리로 점철돼 있다면 앞으로 누가 헌재 판결을 믿겠는가"라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치졸한 문제들"이라고 말했듯이 고구마 줄거리처럼 계속 터져 나오는 이 후보자 관련 의혹들은 '결정타'는 아닐지라도 국민정서를 거스르는 내용이 많다. 특히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할 때 주말과 공휴일에 경기 성남시의 집 근처 음식점에서 45차례 4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다. 업무추진비는 공휴일과 주말에는 사용이 제한되며 관할 근무지를 벗어나서도 쓸 수 없다. 이 후보자 측은 "주말에 헌법연구관들과 등산 등 여가 활동을 하면서 쓴 것"이라고 했지만 구차한 변명처럼 들린다. 가족과 식사를 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를 써서 세금을 낭비했다면 공인 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청와대는 "헌재 소장은 헌법적 가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수적인 철학이 필요하다"며 이 후보자 인선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로 인해 자칫 '보수적 인사는 반칙과 특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이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더욱이 이 후보자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특권의식에 갇힌 듯한 언행으로 헌재 안에서도 신망을 얻지 못했다니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헌재를 통솔할 헌재소장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후보자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21, 22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낙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새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어제 "이 후보자가 새누리당 청문위원에게 청문회 질문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는 듯한 문건을 작성해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사실일 경우 새누리당이 '부실 청문회'의 책임을 뒤집어쓸 수도 있다. 이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2013.01.13 기사)

4. 기사 연습

【예　　문】

· 오늘(24일) 오후 2시 30분경 광주 남구 양림동 500의 8 김성기(29·보일러 설비업)씨가 세 들어 사는 집에서 불이 났다.

· 이 불로 김 씨의 딸(수애.3)과 아들(상우·2)이 불에 타 죽었다.

· 불은 1층 단독 목조주택 30여 평을 모두 태웠다.

· 경찰은 피해액을 1천여 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 불이 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 시장에서 좌판을 하는 이 남매의 어머니 오미란(28)씨는 "애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밖에서 잠가 놓고 나왔는데 불이 나 애들이 방 밖으로 나 오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문기사 쓰기

<단신> 6하(5W1H) 중심

언제 : 24일 오후 2시 30분께
어디서 : 광주 남구 양림동 500의 8 김 모(29·보일러 설비업)씨가 세 들어 사는 집에서
어떻게 : 불이 나
누가, 무엇을 : 김 씨의 딸 수애(3) 양과 아들 상우(2) 군이 불에 타 숨졌다.

⇒ (TIP) '6하' 중 뭐가 빠졌나?

<기사 키우기> 6하 + 추가 확인

맞벌이 부모가 문을 잠그고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어린 남매가 숨졌다.
24일 오후 2시 30분께 광주 남구 양림동 500의 8 김모(29·보일러 설비업)씨가 세 들어 사는 집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안방에 있던 김 씨의 딸(3)과 아들(2)이 불에 타 숨졌다.
이 두 남매는 안방에서 놀다 어머니 오 모(28)씨가 방문과 바깥문을 밖에서 잠근 뒤 외출하는 바람에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다.
불은 1층 단독 목조주택 30여 평을 모두 태워 1천 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다.

방송기사 쓰기 — *실제 작성해 보기*

앵커 :

기자 :

오 모 씨(피해 남매 어머니) :

기자 :